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1. 머리말

‘텍스트언어학’과 ‘본문언어학’은 어떠한 관계일까? 이는 ‘text linguistics’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남한 학계에서는 영어 그대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 학계에서는 ‘text’를 ‘본문’이라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두 예를 더 들어 보자. ‘말뭉치언어학’과 ‘코퍼스언어학’이 있다. 이는 ‘corpus linguistics’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corpus’를 그대로 ‘코퍼스’라고 사용하고 있고, 남한 학계에서는 이를 ‘말뭉치’라는 고유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기지’가 있는데, 이는 ‘database’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전문용어이다. 위에서 몇몇 언어학 용어를 들어 보았듯이 남북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

그동안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와 통합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 과제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대에 남북한 컴퓨터

* 이 글은 글쓴이가 2018년 10월 26일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 회의’(주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다시 쓴 것이다.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이후[홍윤표·진용욱(1996)],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최기선(2001·2002·2003), 김광수(2004)의 기반 연구에 이어, 남북 언어학 용어 표준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고[권재일(2006)], 남북 체육 용어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최기호(2008)]. 그 이후 남북 무역 용어 비교 연구가 이어졌으며 [조명철(20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3개 학문 분야의 남북 용어 비교, 한국표준협회와 정보통신기술협회의 관련 분야 남북 용어 비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남북학술용어 비교사전》 편찬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 [김문오·전수태(2007), 김선철·김건희(2008)], 최근 몇 해 동안 언어 정책 차원에서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신중진 외 (2015·2016) 등]. 이 모든 것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제 이러한 앞선 연구에 바탕을 두고 남북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남북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북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남북 교류가 잦아지면서 우리는 방송에서 남북 회담에 참여하는 북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한다. 남한 말과 북한 말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남북의 언어 구조는 상당 부분 같고, 얼마간의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개념을 남기심(2002)에서 인용해 보자.

“예부터 남이나 북에 여러 지역 방언이 있었다. 이런 방언적 차이를 이질화라 할 수 있는가? 동일한 언어가 지역 간의 교류가 끊김으로써 이질화하여 분화되기에 이르는 것은, 음운 체계의 변화, 문법의 변화로 인하여 어휘의 발음 구조가 달라지고 문장 구성 방법이 달라지며, 어휘 체계도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의 심각한 이질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남북 간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상의 변화도 없고,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남북은 분단 이후 일상생활 용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어휘에 차이가 나며 한글 표기법도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고, 언어 문화의 차이로 화법의 특징도 서로 다르다. 남북 어휘의 차이는 주로 광복 이후에 생겨난 말에서 나타나며,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로 감사, 요청, 거절, 사과 등과 같은 화법에서 남한은 주로 간접 화법이, 북한은 주로 직접 화법이 쓰여 서로의 대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2.1. 남북 언어의 차이

광복 이전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가 1933년에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1937년에 표준말을 사정하여 보급·교육한 결과, 남북은 표준화된 언어 및 문자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분단 초기에도 남북은 이러한 표준화된 언어 및 표기법을 가졌는데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동일한 언어 정책을 펼쳐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한은 문교부 편수국을 책임진 한글학회의 최현배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 정책을 수립하였고, 북한은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1948년 4월 남북 여러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평양에 갔다가 잔류한, 이극로를 중심으로 언어 정책을 펼쳤다. 이렇듯 현재 남북이 분단 70년이 지났음에도 언어

체계의 근본 차이가 없고 표기법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1] 분단 이전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언어와 표기법을 표준화했다는 점과, [2] 분단 이후 남북의 언어 정책을 담당한 학자들이 모두 같은 조선어학회에 뿌리 두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런데 분단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언어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분단 이후 이러한 남북 언어 차이의 원인은 다음 유형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1966년 이후 김일성 교시에 따라 문화어를 제정하면서 평안 방언, 함경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이다. 광복 이전부터 남북 언어에는 방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북한의 문화어 가운데 남한 말과 서로 다른 경우는 이러한 평안 방언이나 함경 방언을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채소’에 대한 ‘남새’, ‘거위’에 대한 ‘개사나’, ‘누룽지’에 대한 ‘가마치’, ‘곶’에 대한 ‘인차’, ‘값이 헐하다’에 대한 ‘값이 눅다’ 등이다.

둘째, 같은 어휘를 남북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이다.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는 광복 이후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정책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바쁘다’의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어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일없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분이 상했을 때 쓰지만, 북한에서는 예사롭게 괜찮다는 뜻으로 쓰인다.

셋째, 분단 이후 남북이 새로 만들어 쓰는 다듬은 말과 외래어의 경우이다.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새로 쓰는 어휘에는 다듬은말과 외래어가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따라 다듬은말에는 ‘서커스’에 대한 ‘교예’, ‘홍수’에 대한 ‘큰물’, ‘혈액 순환’에 대한 ‘피돌기’ 등이 있다.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남한

과 달라진 외래어, 외국 지명의 경우로, ‘컴퓨터-콤퓨터, 로켓-로케트, 루마니아-로므니아, 폴란드-뿔스카, 헝가리-웡그리아’ 등이 있다.

2.2. 남북 언어 차이의 극복 과제

이와 같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통일 시기에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원활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사회·문화 갈등이 일어난다. 실제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고려인 등 다소 차이 나는 한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반드시 미리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어휘의 차이, 공공언어의 차이, 전문용어의 차이, 표기법의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마구 쓰는 것을 줄여 가야 할 일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 말에는 최근 수많은 외래어, 외국어가 쓰이고 있어서 남북 언어의 어휘가 차이 나는 원인이 된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꼽는 것이 지나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언어의 통합을 위한 절실한 과제는 바로 남한 말에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이 쓰는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다듬는 일이다.

둘째, 언어문화와 화법 차이를 서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고마움을 전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이라거나 사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쑥스러움도 모르는 가벼운 사람들과 오해하고,

남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상황에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라 오해한다. 따라서 서로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셋째, 남북에서 서로 다르게 쓰는 전문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해야 할 일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사회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정확한 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북의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면 통일 시기에 문헌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보 검색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 사회로서의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뜻에서 이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남북 전문용어의 현실과 통합의 필요성

3.1. 전문용어와 그 분류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정확하게 규정된 과학적 개념과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일반 용어와 구별되는 조어 방식, 의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전문용어는 간결성과 정확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도구로써 기능을 수행한다[김광수(2004), 신중진 외(2015)].

전문용어는 어휘의 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언어학에서 음운론의 예를 들어 보자. '말소리'는 고유어에서 기원한 것이고, '음소'는 한자 말에서, '악센트'는 (서양)외래어에서 각각 기원한 것이라 하겠다.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가 함께 쓰인 것도 있다. 전문용어는 조어 방식에 따라 단일어, 복합어로 나뉠 수 있으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권재일(2006) 참조).

전문용어의 실제 양상을, 남북 모두 가장 규범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학교 문법의 음운론 용어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학교 문법 서인 《고등학교 문법》(2002)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94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2개이고, 한자어가 62개이며, 서양 외래어는 하나도 없다. 남한의 학교 문법 용어는 이미 오래전에 한자어 기원으로 통일한 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자어 용어가 중심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달리 음운론의 경우는 고유어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전체의 1/3을 넘어선다. 북한의 학교 문법서인 《국어문법》(2001)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41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5개로 압도적이며, 한자어는 6개로 나타난다. 다음은 몇몇 예를 들어 대조한 것이다.

(1) 남북 음운론 용어 대조

낱	북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음절	소리마디
예사소리	순한소리
단모음	홀모음
된소리	된소리
이중모음	겹모음
거센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울림소리
구개음화	‘지, 치’로 되기

또한 전문용어는 그 수준, 또는 용도에 따라 교육용 전문용어와 학술·산업용 전문용어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용 전문용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2] 학술·산업용 전문용어란 학술 전 분야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한편 최근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로 나누고 있다[신중진 외(2015)]. 기초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기초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심화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3.2.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남북의 전문용어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학문 연구와 교육 풍토의 차이, 외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권재일(2006)].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여 연구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인 김문오·전수태(2007)은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고, 이에 이어진 연구인 김선철·김건희(2008)은 국어 문법,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 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다. 실제 예를 국사 교과서인 남한의 《국사》와 북한의 《조선력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 교과서에서는 1,040개 용어, 북한 교과서에서는 596개 용어가 대상이 되었다. 대응 쌍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남북의 용어가 같은 것은 168개이고 차이 나는 것은 109개이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갑오개혁/1894년부르조아개혁’, ‘6·25전쟁/조국해방전쟁’,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 ‘통일신라/후기신라’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 (2)는 용어가 같은 예이고 (3)은 용어가 서로 다른 예이다.

(2) 남북 국사 교과서의 같은 용어(168개)

1. 고유어(5)

무명, 설기떡, 수리취떡, 시루, 움집

2. 한자어(156)

가야, 갑신정변, 금당벽화,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평양천도

3. 외래어(1)

카프

4. 고유어+한자(5)

거북선

5. 한자어+외래어(1)

레닌주의

(3) 남북 국사 교과서의 서로 다른 용어(109개)

1. 고유어↔고유어(1)

고인돌↔고인돌무덤

2. 한자어↔한자어(70)

고려청자↔고려비색자기, 광개토태왕릉비↔광대토태왕릉비, 임술농민
봉기↔1862년(전국)농민폭동, 임오군란↔1885년(임오)군인폭동

3. 외래어↔외래어(3)

러시아↔로씨야

4. 한자어↔고유어(2)

토기↔질그릇, 삼국시대↔세나라시기, 왕오천축국전↔다섯개의 천축
국에 갔다는 이야기, 위화도회군↔위화도군사돌림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은 대개 어문 규범의 차이에 의한 것과 말다듬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먼저 어문 규범의 다름에 따른 차이인데,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것 11개, 외래어 표기의 차이에 따른 것 12개이다. 어문 규범 차이의 중요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에서는 ‘고령가야/고녕가야’, ‘나당연합군/라당련합군’, ‘상경용천부/상경룡천부’, ‘양반전/량반전’, ‘용비어천가/룡비어천가’ 등으로 대응된다. 물론 인명에서 두음 법칙 적용 여부로 차이가 나는 것도 많다.

외래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대응되고 ‘외래어+한자어(남)↔한자어(북)’ 유형에서는 ‘메이지유신/명치유신’, ‘운요호사건/운양호사건’ 등으로 대응되며 ‘외래어+한자어(남)↔외래어+한자어(북)’ 유형에서는 ‘헤이그특사사건/헤그밀사사건’, ‘아마토조정/아마또왕정’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은 말다듬기의 차이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해 북한에서는 고유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한자어(남)↔고유어(북)’ 유형에는 ‘송하보월도/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가 있다. 그리고 ‘한자어(남)↔고유어+한자어(북)’에서 ‘노랑해전/노랑바다싸움’, ‘목판인쇄/나무판 인쇄’, ‘몽유도원도/꿈에 본 동산’, ‘보부상/보집장사군’, ‘세형동검(細型銅劍)/좁은놋단검’, ‘자격루/자동물시계’ 등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는 ‘대첩(大捷)’을 ‘대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승리’라고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는 ‘고유어+한자어’의 합성 용어로 쓰는 사례가 있다. ‘펜석기/타제석기’, ‘간석기/마제석기’ 등이 그러하다.

3.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

통일 시기의 남북 언어 차이, 특히 전문용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 안으로 통합하여 보급·교육하는 목적은 통일 이후에 통일 국가 국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통일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남북 주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용

하는 행정 전문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전문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통일 국가 미래 세대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전문용어 표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차이, 전문용어의 차이로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차별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언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갈등과 불만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방향

4.1. 원칙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미리 전제해 두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언어학적 합리성을 존중하며,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4.2. 고려 사항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간 남북의 언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학술회의를 통해 어휘 표준화에 대해 학술 토론을 이어 왔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남북 어휘 표준화를 실천해 왔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실질적 추진 방식은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대표 사전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것은 그대로 표준화한 어휘로 삼고,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 나는 것은, [1] 남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2] 북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3]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4]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함께 쓰는 복수 어휘로 삼는다.

둘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은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기구에서 표준화한 성과는 언어 사용자들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통합안을 적극 교육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 동포들에게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의 《조선말규범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집을 편찬하여, 즉 남한의 전문용어, 북한의 전문용어, 남북의 통합 전문용어를 정리한 대조집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 기기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4.3. 추진 단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1단계] 통합 구축 단계

기존의 남북 전문용어 실태를 분석하여 보완할 부분을 찾아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문어 및 구어 자료 말뭉치를 확대 구축하여 전문용어 통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제2단계] 통합 접근 단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급하여 확산한다.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 상담 기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3단계] 통합 정착 단계

표준안을 실제 교육, 학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4.4. 교육용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은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남북의 초·중등학교 각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 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제작하여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 기기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4.5. 학술·산업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 소통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한편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 전 분야 및 산업 현장의 전문용어는 실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분야 간 통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분야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각 분야의 학술 단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행정, 의학·보건, 정보 통신, 경제·금융, 법률, 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분야는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하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 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분야별로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제작하여 해당 학계와 현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 기기 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해당 학계와 현장에서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학계 및 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남북의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의 소통과 산업 발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시기에 이러한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정책이야말로 통일 국가 언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믿는다. 국어 정책 당국과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와 통합의 또 하나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한국어를 지키는 일이다. 언어학자들은 미래에 언어의 소멸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앞으로 300년 이후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도 절멸할까? 그러나, 한국어는 저 만주어처럼 절멸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정보와 경제가 앞선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저 부탄의 종카어나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처럼 한국어도 가정 언어 또는 생활 언어에 머물고 교육용 전문용어, 학술·산업 전문용어와 같은 전문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이다.

영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문용어의 국어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어의 절멸 과정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한국어 보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다듬어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언어가 지금 일상생활 용어로만 사용되고 전문용어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위상이 낮아지고 사용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전문용어가 외국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용어의 국어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11),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구현정·권재일·전정미·양수경(2016),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 차이 극복 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상명대학교 천안 산학협력단.
- 국립국어연구원(1996),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2017),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쪽.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2016), 《언어 표준 체계 통합》, 미간행.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문오·전수태(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15~23쪽.
- 김선철·김건희(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7~12쪽.
- 문영호(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14~22쪽.
-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대성 외(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185~210쪽.
- 이승재(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양명희·임현열·최유숙·이대성(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조명철(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 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국립국어원, 33~52쪽.
- 최기선(2001·2002·2003),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국어단체연합.
- 홍윤표·진용옥(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국어정보학회·문화체육부.
- 홍중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